



고창 선운사는 1월 28일 지장보궁에서 불기2560년 교구총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재정투명화로 수행공동체 만들 것”

선운사 교구총회 및 운기 스님 추모제

조계종 24교구 선운사(주지 경우)는 1월 28일 지장보궁에서 불기2560년 교구총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교구총회에서는 종무보고 및 종무계획, 선운사 불사계획과 사업계획 등의 안을 결의했다.

주지 경우 스님은 “본말사 재정의 투명한 운영과 포교에 대한 뚜렷한 비전 공유를 통해 수행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교구총회에서는 승려복지사업의 확대, 불교회관 건립 재정보호, 승가 교육·포교·복지사업을 위한 목적사업 진행, 승가 대비장 시설 건립 등 기타 교구발전 사업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종무행정 우수사찰에는 좋은절(주지 법경), 포교우수사찰 정음 성불암(주지 상운), 불사 우수사찰 임실 상이암(주지 선효)이 선정됐다.

한편 선운사는 교구총회에 앞서 근대 한국불교의 대강백인 성원당 운기 스님의 25주기 추모제를 봉행했다.

선운사 대웅보전에서 봉행된 추모제에는 내장사 대우 스님을 비롯한 운기 스님 문도들과 선운사 본말사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1898년 고창군 해리면에서 출생한 운기 스님은 석전 영호 스님의 법제자이자 전강제자로 백양사 강원 강주를 역임하는 등 후학의 교육과 호남 불교진흥에 이바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젠 좌복보다 의자가 법회 보기 편해요”

전북 신행문화 입식 변화 ‘눈길’

평균 수명이 늘고 고령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추세에 따라 불자들의 평균연령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사찰이 많은 농촌은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사찰이 우리나라 전통생활방식인 좌식에서 입식으로의 전환을 모색, 신도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에 나서고 있다.

김제 청운사(주지 도원)와 군산 은적사(주지 석초)는 최근 법당에 좌복을 대신해 입식의자를 설치, 좌식에 익숙한 불자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다.

이들 사찰은 여러 명이 함께 앉을 수 있고 책이나 소지품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이 달려있는 일명 ‘에베이지’를 설치했다. 보통 관절염 등으로 다리가 많이 불편한 노인불자들을 위해 법당에 의자를 몇 개 가져다 놓는 일은 있지만 이렇게 전면적으로 법당에 입식의자를 설치한 경우는 드물다.

김제 청운사는 지난해 가을부터 무량광전에 입식생활에 익숙한 젊은이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예배용 의자 30여개를 들여놓았다. 젊은 세대뿐 아니라 고령의 불자들이 장시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야 하는 환경이 부담스러울 거란 생각에서다.

주지 도원 스님은 “젊은이들은 이미 의자와 침대생활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법당에 앉아 있는 것을 매우 불편해 한다”며 “젊은이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또 “장애이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절에 다닌 노부살림들이 바닥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등을 기댈 수 있고 다

법당에 의자 설치해 편의 확대

청년·노인불자 배려 돋보여

신도들 긍정적 반응 나타내

재의식·수행공간 별도 마련

리도 편한 의자에 앉아 법회를 보고 참배하는 게 훨씬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화에 신도들도 긍정적인 반응이다. 전주에 사는 테기준 불자는 “불교에는 획기적인 일이다. 법회에 참석해서 좌식으로 앉아있었다 보면 다리도 저리고 많이 불편했는데 의자에 앉아 법회를 보니 그런 불편한 점이 없어졌다”며 “불교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이런



김제 청운사 무량광전 내부전경. 흔히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입식의자들이 설치돼 신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획기적인 시도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청운사는 불자들의 대표적인 수행방법인 절 수행을 위해 별도의 수행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다.

도원 스님은 “절을 하는 불자들과 재의식을 봉행하는 전각은 별도로 마련돼 있다”며 “개신교회도 처음에는 마루에서 출발했지만 의자를 놓음으로 신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했다. 이제는 불교도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군산 은적사는 극락전을 신축하면서 마룻바닥을 없애고 신발을 신고 들

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변화를 줬다. 불자들의 참배나 절 수행은 주 전각인 대웅전을 이용하고 강의나 법문은 극락전을 이용하는 형식이다. 극락전은 강의실, 법회, 합창 연습 등 일반적으로 신도 수행공간으로 이용하면서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처럼 고정관념을 깨고 신도의 입장에서 변화를 시도하는 전북 사찰들의 작은 배려가 전북 불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마이산 탐사 신비의 ‘역 고드름’

기도객 정한수에 10~20cm 크기로

최근 전북지방에 폭설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전북 진안 마이산 탐사 곳곳에 수정같이 맑은 역 고드름이 모습을 드러내 화제다.

마이산 탐사(주지 진성)에 따르면 역 고드름은 1월 23일경부터 정한수 2곳에서 10cm와 20cm 크기의 역 고드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보통 역 고드름은 폐광이나 동굴 천장에서 녹아내린 물이 바닥에 얼어붙으면서 생기지만 이곳 마이산 탐사의 역 고드름은 기도객들이 떠 놓은 물그릇에서 생겨 신비감 더하고 있다.

탐사의 역 고드름은 그릇 안의 가장자리부터 얼면서 물의 부피가 커져 털 얼어붙은 가운데 부분으로 물이 밀려나와 위로 솟는 현상이다. 얼음이 아직 얼지 못한 중앙의 작은 구멍 수면으로부터 대개 증으로 수증기 입자들의 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수증기들이 얼음 가장자리에 달라붙어서 얼음기둥을 키워가게 된다. 보통은



탐사 정한수에 생긴 역 고드름.

10~20cm정도지만 큰 것은 30cm에 이르고도 한다.

마이산 탐사에는 때마침 내린 폭설과 강추위 속에서도 마이산의 설경과 역 고드름을 보려는 탐방객들이 줄을 잇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이전 난항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백지화 상태

광주 무등산 원효사 주변 상가 등 집단시설지구 이전 정비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새로운 후보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개발행위 자체가 불가능한 곳으로 한차례 무산된 데다 광주호 주변 개발과 연계해 새롭게 추진되면서 계획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1월 13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무등산 국립공원사무소는 2014년 7월 원효사 집단시설지구 이전을 위한 용역에 들어가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 시·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복구 효호동 취가정(醉歌亭) 일원으로 확정했다.

새 이주단지(4만7000㎡)에는 가구당 330㎡ 규모를 기준으로 상업시설 1만 2540㎡, 주차장 등 공공시설 1만3155㎡, 녹지 2만1305㎡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사업비는 이주민 보상비와 단지 조성비, 철거 및 복원비 등 230여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새 이주 예정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행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백지화됐다.

무등산 원효사 지구는 시민들이 무등산을 찾을 때 중심사 지구와 함께 대표

시민들 많이 찾는 산행명소

넓은 상가에 경관 훼손 지적

TF 운영 거쳐 이전 사업 추진

적으로 산행을 하는 명소이다. 앞서 중심사 지구는 지난 2008년 집단시설지구와 정비사업이 완료됐다.

광주시는 최근 무등산에 위치한 광주호 주변 생태태어난 조성사업 전담팀(TF)

를 구성하고 이주단지를 보다 큰 틀에서 접근하기로 했다. 광주호 주변의 역사, 자연환경을 살려 이주단지 말고도 한옥 마을 조성, 생태탐방체험관 등과 연계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해발 370m 지점에 위치한 원효사 집단시설 지구는 무등산국립공원 심층부계곡을 중심으로 1980년대 이전부터 형성돼 오면서 남은 상가 39가구의 식당이 밀집해 있어 무등산 경관과 환경을 훼손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광주시 관계자는 “TF 운영을 거쳐 이전후보지 등이 결정되면 최대한 빨리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추진하는 등 집단시설 지구 이전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등산은 광주 시민들의 대표적 휴식처로 중심사, 원효사, 약사암 등 전통사찰을 비롯해 100여 개의 사찰이 운집한 광주 불교계의 성지와 같은 곳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성거사 바라밀봉사단 미얀마 고아원 후원

광주 성거사 바라밀봉사단(대표 해공)은 최근 빛고을나눔나무와 공동으로 미얀마 양곤 외곽의 아유디가 사원 4000달러 상당)를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후원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해공 스님, 아리아 오윤파 스님(아유디가 사원 내 초등학교장), 광주 성거사·영천 죽림사·제주 동국선원 신도로 구성된 봉사단원 등 13명이 동참한 협약식에서 양측은 1대1 양부모 맺어주기 및 지원사업, 학교시설 및 어린이들의 건강과 학습에 도움되는 교육기자재 지원사업, 상호교류 년 1회 이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로 했다.

한편 바라밀봉사단은 2013년부터 3년째 미얀마 학교를 방문해 도서관 건립, 학용품 지원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p>연등속지 백색 1묶음</p> <p>판매가 6cm 3,500원 판매가 8cm 5,000원 판매가 10.5cm 6,000원 판매가 12cm 8,000원</p>	<p>한지 칼라등지</p> <p>판매가 8cm 27,000원 판매가 10.5cm 38,000원</p>	<p>PVC등표(100매)</p> <p>내지 12,000원 집계부착 20,000원 *크기: 8.5cm×21cm</p>	<p>봉축연꽃리본(100개)</p> <p>일반 18,000원 고급 27,000원</p>
<p>일반연일 6,000</p>	<p>바림연일 7,000</p>	<p>한지바림연일 8,000</p>	<p>국산 LED전구(50개) 90,000원</p>

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 22cm (50구) @ 65,000
- 23cm (50구) @ 65,000
- 25cm (50구) @ 65,000
- 30cm (50구) @ 65,000
- 35cm (50구) @ 70,000
- 40cm (50구) @ 73,000
- 50cm (50구) @ 75,000
- 1 m (50구) @ 90,000
- 2 m (25구) @ 80,000

믿음과 정직의 산실!

그곳은 동진기획 · 붓다쇼핑

연등 할인가

- 바림·공단등(6cm) @2,500원 (60개이상)
- 바림·공단등(8cm) @3,000원 (30개이상)
- 바림·공단등(10.5cm) @6,000원 (16개이상)
- 바림·공단등(13cm) @13,000원 (6개이상)
- 바림·공단등(20cm) @35,000원 (2개이상)
- 바림·공단등(30cm) @90,000원 (1개이상)
- 황금등(6cm) @2,700원 (60개이상)
- 황금등(8cm) @3,300원 (30개이상)
- 황금등(10.5cm) @6,500원 (16개이상)
- 황금등(13cm) @15,000원 (6개이상)
- 청도비닐만월등(100개) 160,000원
- 국산비닐만월등(100개) 170,000원
- 청도연화만월등(100개) 220,000원
- 국산장만월등(100개) 220,000원
- 팔각만월등(100개) 180,000원
- 비닐오색청사초롱(100개) 240,000원
- 비단접등(10.5cm)(100개) 350,000원

금띠지 등표

판매가 800원 할인가 600원 (200개)

*종류: 만사대길, 소원성취, 학업성취, 사업성취, 삼재소멸 중 선택.
*하단부분은 생·이름을 적을 수 있습니다. (3.5cm×70cm)